

완전복음의 망대를 세운 그리스도의 제자들

-복음으로 여는 빌레몬서-

창세기 50:20, 빌레몬서 1:16

정윤돈 목사님

* **창50:20**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 **몬1:16** 이 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 받는 형제로 돌리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나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주와 천하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가장 가치있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며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전 인류가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며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다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가 되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의 제자가 되어 237나라와 5천 종족까지 살릴 수 있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 힘을 얻고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 가정과 나라와 민족과 직장현장을 위해, 교회와 후대를 위해 생명 걸고 올인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하옵소서. 성도 중에 혹시 세상을 살아가면서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과 이쁨과 문제에 빠진 성도들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 응답과 해답을 얻을 뿐만 아니라 도전해야 할 구체적인 미션과 음성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생을 살다보면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왜 오지?’라고 생각하는 시간이 온다. 그런데 앞으로 더 힘든 고통이 올 것이다. 인생을 살수록 좋아지는 것은 없고 고통스럽고 희망이 없어진다. 저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자살하는 것도 이해가 된다. 그런데 그 인생의 문제와 갈등들도 세월이 지나가니까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당시에는 문제 상황에 목을 매지만 세월이 지나가면 별 게 아니다. 기억도 안 난다.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더 큰 문제들이 올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이길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기준, 수준, 표준으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그 말씀이 체질화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문제가 왔을 때 복음적으로 이기게 된다. 말씀이 체질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사단에게 맞으면서 삼중고를 당한다. 말씀으로 인생의 모든 기준을 바꾸고 그체 체질되시기 바란다. 요셉은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제들을 용서했다. 요셉은 총리가 되기 전에 과거를 불평하지 않았다. 요셉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형님들을 통하여 나를 노예로 팔았다고 고백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계획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내게 일들이 닥친다. 이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복음으로 결단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 문제 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계획이 있다. 이번에 부임하는 일본총리가 4대째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인기가 없는데 독수리는 무리지어 날아다니지 않는다고 말한다. 한 자리 해보려고 떼거리로 다니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정치인이 일본에 섰다고 생각한다. 다니엘과 요셉과 같은 총리와 대통령, 지도자가 우리나라에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계산하고 눈치보면 어떻게 복음의 사람으로서 빛을 발할 수 있겠나. 단 한 사람이라도 모델이 되면 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는다. 여러분이 다 국무총리가 되고 대통령이 되라는 말이 아니다. 여러분은 가정과 직장에서, 교회에서 요셉이 되고 빛을 발하라. 작은 현장이지만 작은 현장이 더 힘들다. 힘든 곳에서 빛을 발하는 게 쉽지 않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겐 당연한 일이다. 사도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도 완전복음의 망대를 세운

모델적인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었다. 그들은 절대불가능한 상황을 절대가능으로 만든 완전복음의 사람들이었다.

오늘은 ‘완전복음의 망대를 세워 복음의 진수를 보여준 세 명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는 내용으로 복음의 말씀을 나누고자 한다. 오늘 나눌 빌레몬서는 바울 사도가 기록한 신약성경 가운데 그 길이가 가장 짧은 1장으로 되어 있지만 그 안에 복음과 삶의 진수가 담겨있다. 아무리 유대인처럼 구약성경을 달달 외워도 삶에 나타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제가는 어떤 분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는데도 변화가 하나도 없다. 성경은 나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보는 것이다. 빌레몬서는 1장이지만 그리스도를 깨닫고 삶으로 나타나는 증거를 보여준다. 여러분도 복음을 삶으로 써 가시기 바란다. 빌레몬과 오네시모와 바울, 이 세 사람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델로 삼고 본받아야 할 믿음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또 이들은 완전복음의 망대를 세운 모델적인 전도팀, 선교팀이었다. 소수라도 이 팀이 있으면 된다. 이들은 복음, 오직복음, 완전복음, 영원한 복음을 실현한 참복음의 사람들이었다. 영적으로도 단계가 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적인 것만 아는 불신자 단계가 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염려하고 ‘나만 보인다. 성령의 역사로만 영원하고 가치있는 것들을 볼 수 있다. 그체 믿어지는 것만 해도 대단하다. 그런데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 오직으로 결단해야 한다. 그리스도가 돈, 자존심, 성공, 아내, 지식보다 못하는데 어떻게 전도자가 되고 제자가 나오나. 오직을 깨달아야 한다. 그 안에 다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있다. 이 증거를 가지고 후대들에게 말해줘야 한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합당하게 복을 주신다. 이게 오직 복음이다. 그런데 전도는 잘 하는데 삶이 변하지 않는다. 완전복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전도와 선교가 영원히 남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이다. 여러분이 못 하더라도 전도와 선교를 마음에 담아야 한다. 예수님은 증인이 되리라 하셨다. 저는 처음 일본에 가서 일본에 300군데 교회를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복음은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한다. 우리들은 복음이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과 영혼까지 각인, 뿌리, 체질이 될 때까지 복음을 묵상하고 전해주어야 한다.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문제가 아니라 축복으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발견해야 한다. 그체 체질이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남 탓하면 아직 복음과 그리스도가 주인되지 않고 왕되지 않고 체질되지 않은 상태인 것이다. 이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 연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나 복음으로 변화된 오네시모를 위하여 그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보낸 개인적인 편지이다. 오네시모는 골로새라는 도시에 살고 있었던 자신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큰 피해를 주고 로마까지 도망 온 노예였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서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다시 사도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된 오네시모는 깊이 회개한 후 전도사 바울에게 유익한 자료 심복이라고 인정받을 정도로 거듭나게 되었던 것이다. 여러분도 거듭나야 한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으로 그대로 살아가는 안 된다. 계속 재앙과 저주와 불행이 올 것이다.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한다. 지금 모습으로는 응답받거나 전도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수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써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빌레몬에게 부탁의 편지를 쓰게 된 것이다. 그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이다.

오늘은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빌레몬과 오네시모와 사도 바울 세 사람이 어떻게 완전복음의 진수를 삶으로 보여주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1. 첫 번째 인물은 종직자 빌레몬이다. 빌레몬이 보여 준 복음의 진수는 무엇일까?

(1) 그는 자기의 집을 미션홈과 지교회로 세운 종직자였다. 빌레몬서 1장 2절 하반절에는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 1장 2절에 보면 “자매 압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 된 아킴보”에게 편지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 나오는 압비아는 빌레몬의 아내다. 아킴보의 이름은 ‘마부’라는 뜻이고 말을 돌보는 종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마부를 ‘우리와 함께 병사 된 아킴보’라고 말하고 있다. 즉 빌레몬은 이렇게 온 가족과 노예들까지 복음의 제자로 양육했던 모델적인 종직자였던 것이다.

(2) 빌레몬은 자신을 배신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믿음의 형제로 받아들이었다. 전승에 의하면 빌레몬은 바울의 부탁을 받아들여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고 그에게 신분의 자유까지 주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2세기 초에 활동했던 교부 이그나티우스는 에베소교회의 감독 오네시모에게 편

지한다는 내용을 통해 오네시모가 나중에 디모데를 이어 에베소교회의 감독이 되었다고 기록하였다. 에베소교회 전체의 대표가 되었다.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은 '유익한 자'이다. 이 이름은 변화된 후에 주인인 빌레몬이 지어준 이름으로 보고 있다.

(3) 빌레몬은 자신을 양육한 목회자의 어려운 부탁을 수용했을 뿐 아니라 그 이상으로 실천했던 믿음의 제자였다. 아마도 오네시모가 준 피해는 빌레몬의 산업이 문을 닫을 정도로 치명적인 것이었을 것이다. 인간적으로나 법적으로나 그가 받은 피해를 생각한다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빌레몬은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의 말에 순종했다. 빌레몬서 1장 19절에 보면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대단한 말씀이다. 빌레몬은 사도 바울에게서 받은 복음을 그 어떤 세상적인 것보다 소중한 은혜의 빛, 구원의 빛으로 생각할 정도로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정말 은혜 받으면 교회를 내 집보다 사랑하게 되고 헌신하게 된다. 지난 주에 교회 허수구가 터져서 청소하는데 불평하는 장로님이 하나 없으시더라. 교회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빌레몬은 하나님께 은혜 받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 너무나 은혜가 넘쳤다. 여러분이 교사하고 헌신하고 반주하고 청소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다. 헌신을 노동으로 생각하면 얼마 못 간다. 그건 구원의 은혜가 약한 것이다. 빌레몬서 1장 18절에서 19절에는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바울이 간접적으로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돈이 아깝나는 것이다. 여러분도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아놓고 용서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바울은 그 모습을 꾸지람하고 있다. 이진 빌레몬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소중한 말씀이다. 우리는 다 헌신하고도 내가 미안하다고 말해야 한다. 다 용서하고도 내가 부족하다고 말해야 한다. 이게 복음적인 자세다.

(4) 빌레몬은 세상의 제도와 법과 육신적인 이익, 손해까지 뛰어넘을 정도로 복음이 완전히 체질화된 사람이었다. 즉 그는 하나님과 사람과 시대 앞에서 복음의 진수, 즉 '완전복음'의 삶을 보여 주었던 것이다. 이런 사람이 다니엘, 에스더였다. 죽을 수도 있지만 영적인 지도자의 말씀을 붙잡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아갔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았다.

(5) 그렇다면 그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는 집에서 교회를 하고 많은 중을 부릴 정도로 부자였지만 겸손히 에베소까지 가서 말씀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다. 에베소에서 골로새까지는 약 100km 정도의 거리였다. 지금처럼 고속철도가 있는 게 아니다. 말을 타고 다니면서 훈련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 받을 때 완전복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훈련을 받을 때 성장한다. 제가 운동하면서만 봐도 성장하려면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배워야 한다. 우리 교회도 중요한 목사님과 전문인들을 통해 계속 배우고 훈련할 것이다.

2. 두 번째로 완전 복음의 모습을 보여준 인물은 오네시모이다.

(1) 오네시모는 주인의 돈을 착복하고 로마까지 도망간 노예였다. (2) 그러나 오네시모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진실하게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회개하고 거듭남을 체험한 사람이었다. 도박과 중독과 같은 자신의 악습을 버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것은 복음의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고 나의 것으로 만들었다는 증거이다. (3) 그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심복이라고 말할 정도로 전도자의 충성된 제자로 거듭났다. 빌레몬서 1장 12절에는 "그는 내 심복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들도 어디에서든지 윗사람들이 나의 심복이라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성경에 나오는 램뎀트 일곱 명들은 모두 이러한 완전복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성경의 내용이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이상한 제사장이었지만 비판하지 않았다. 선생님, 목사님, 대통령, 부모님이 잘못되었다고 할수록 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게 된다. 이것을 뛰어넘어서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 왕까지도 복수할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이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복수를 하지 않았다. 사무엘상 24장 6절에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라"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이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의 행동이다. 내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라. 하늘에 나는 세도 살려두신 건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이 쓰고 계시다.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3. 세 번째 인물인 바울 사도 또한 완전복음의 진수를 보여주었다.

(1) 바울은 빌레몬에게 얼마든지 명령할 수 있는 관계였지만 강요하지 않고 겸손하게 부탁하였다. 바울은 1장 8절에서 9절에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써 간구하노라'라고 말하고 있다.

(2) 또한 사도 바울은 연금상태에 있었지만 불신자상태에 빠져서 방황하고 있었던 오네시모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시킨 전도자였다. 사도 바울은 도망자였던 오네시모를 1장 10절에 '아들 같은 사람'으로 1장 11절에 무익했던 사람을 '유익한 자로', 1장 12절에 '심복'으로 변화시킨 말씀의 사역자였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은 아직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을 계속 붙여 도와주고 이해해야 한다. 바울은 감옥에 있든 어디를 가든지 제자를 양육하고 변화시켰다. 나 혼자 겨우 믿고 전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면 안 된다.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12절에는 "간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하므로 네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심복이라"라고 말한다.

(3) 또한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었다. 사탄은 이간질하고 싸우게 만드는데 복음의 사람은 관계를 회복하고 살리는 사람이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와 같은 사역을 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서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이러한 사랑과 은혜를 입은 우리들도 사도 바울처럼 어디서나 화평케 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하겠다. 오네시모를 위해 편지를 쓰고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 직장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도 화평케 하는 Peace Maker가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제자로 만드는 화평을 이루어야 한다. 하나님과의 화평이 가장 중요하다. 인간을 이간질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화평이 가능한가. 인간을 사랑하고 용서하시는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 현장에서 이게 바로 빛과 소금, 그리스도인이다.

오늘은 7.7.7기도 즉 7망대, 7여정, 7이정표 기도문 중에서 7망대 기도를 하겠다. 7망대는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3시대, 오력, 공중권세 결박, CVDIP, 세 가지 뜯이다.

①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마음, 영혼, 몸, 모든 것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② 보좌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시공간초월과 237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내 생명과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전무후무한 답을 내 학업에, 내 현장에, 교회에 주옵소서. ③ 하나님이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속에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④ 이 시간 하나님 나에게 오력을 주옵소서. ⑤ 나에게 시공간초월하는 공중권 세 잡은 자 이기는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⑥ 나에게 미리 보는 CVDIP 축복을 지금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⑦ 세 가지 뜯 그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끝으로 완전복음을 사실적으로 보여준 세 제자들처럼 237나라 5천 종족의 현장에 전도망대, 선교망대, 치유망대를 세워나가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죄악되고 마귀와 닮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대속해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당해야 마땅한데 그리스도의 은혜와 회생을 통해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원죄, 자범죄,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과 신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받았으니 받은 은혜를 내가 이는 모든 사람에게 사실적으로 증거하고 보여주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